



## “축산악취 맡은지 20여년”... 논산시는 ‘떠넘기기’

특별한 대책마련 못한 채 탁상행정 ‘비난’

충남 논산시 광덕면 득윤리 주민들이 인근에 설치된 축산퇴비공장에서 분출되는 악취로 지난 20여년간 정신·물질적 고통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었다는 분지 보도(11월 16일자 1면) 이후에도 논산시가 여전히 특별한 대책마련을 못한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지역 현안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음에도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황명선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만남을 기피하는 등의 태도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광석 득윤리·중리 퇴비공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최광락·이하 광석 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수십년동안 논산계룡축협이 운영 중인 축산퇴비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 공장 운영 폐쇄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논산시와 논산계룡축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논산계룡축협이 최근엔 기존 축산퇴비공장이 노후화로 새로운 공장을 바로 옆에 설치해 퇴비생산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신축된 축산퇴비공장은 논산계룡축협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비 40억(기금12억, 도비 2억7천, 시비 6억3천, 용자 9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1일 70톤(퇴비화 70톤)의 비료 생산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번에 신축된 축산퇴비공장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단 한차례에 실시하지 않고, 주민 현장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했다는 점이다.

광석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인 A씨는 “축산퇴비공장 신축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 이면엔 우리 투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초기에 구성된 ‘광석면환경오염투쟁위원회’ 위원장인 K씨의 전횡이 있었다. 주민들을 대표해 축산퇴비공장 폐쇄에 앞장서야 할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올해 일부 이장들과 짜고 피해보상금 합의로 1억 5천만원(논산계룡축협 1억원·광석면 양문농가 협회 5천만원)을 받아 자신이 1억 원을 챙기고 5천만원은 일부 이장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현재 기존의 축산퇴비공장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신축한 퇴비공장은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공장을 가동해 악취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악취저감 시설을 정말 갖춰나 의식이 들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장 인근 사찰 덕음사에서 거주하는 남모(65·득윤리)씨는 “지난 4년동안 이 지역에서 원인모를 질병이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은데 혹 악취와 물과 관련성이 있는게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안을 대하는 논산시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논산축협퇴비공장 관련부서인 축산과는 “역대 정부의 농림축산정책에 따라 ‘역대 정부가 농림축산정책에 따라 ‘역대 정부의 농림축산정책에 따라’”라며 “특히 요즘엔 밤10시~밤11시 사이에 공장을 가동해 저녁에도 악취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이 말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남모씨는 “퇴비공장 인근 지역 민가에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불순물이 나오고 냄새도 난다. 과연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4년동안 이 지역에서 원인모를 질병이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은데 혹 악취와 물과 관련성이 있는게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안을 대하는 논산시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논산축협퇴비공장 관련부서인 축산과는 “역대 정부의 농림축산정책에 따라 ‘역대 정부의 농림축산정책에 따라’”라며 “특히 요즘엔 밤10시~밤11시 사이에 공장을 가동해 저녁에도 악취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이 말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모씨는 “몇 달 전 하도 악취가 심해 논산시청 환경과에 전화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 여직원이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민원을 제기하냐’는 식으로 편견을 줬다”면서 “애초에 사찰엔 신도분들도 꽤 계셨는데 요즘엔 악취로 신도분들이 거의 없다”고 눈물을 글썽 거렸다.

이정복기자

## 국방대 골프장 조성 9부 능선 넘었다

전낙운 의원 조력자 역할 특목

충남도 국방대 골프장(체력단련실) 조성 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골프장 조성에 제동을 걸었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약속 이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출연 계획을 승인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도가 제출한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설계비 25억8000만원)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승인한 출연 계획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사실상 골프장 조성은 급물살을

타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골프장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게 사실이다.

출연금도비 200여원을 통한 골프장 건립이 지역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예산이라면 국방산업단지 조성이나 국방 관련 기관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국방대와 다시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도와 국방대가 골프장 지원에 상응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이전·유치에 합의점(MOU 체결)을 찾으면서 상임위의 부정적인 기류는 잠식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전낙운 의원의

열과성이 더해졌다는 후문이다.

실제 전 의원은 5분 발언과도 정질문을 통해 국방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효율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전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도는 일방적 퍼주기라는 지적을 잠재우기 위해 국방 예비전력 연구소, 문화센터 유치 등을 열어냈다. 또 국방산단을 정부 주도로 조성한다는 등 전에 없던 계획을 쏟아내면서 상임위를 설득했다.

전 의원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여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

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단순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기관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위원장 “도와 국방부가 약속한 사항인 만큼 출연계획은 승인하겠다”며 “차후 지역 경제활성화 및 기관 유치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과 가시적 성과가 없을 시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했다. 김정환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당진시의회!  
시민과 함께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고 봉사를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정에 대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의 장 이종윤			부의장 임창모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창화	위원장 양기철	위원장 안호권	위원장 박창화	위원장 양기철	위원장 안호권
부위원장 김기재	부위원장 김기재	부위원장 정상영	부위원장 김기재	부위원장 김기재	부위원장 정상영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박창화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박창화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임창모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임창모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황선숙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 황선숙

**당진시의회**  
충남 당진시 시장1로 1  
[http://council.daejeon.go.kr]  
전화 (041)350-4811~5, FAX (041)355-1901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행복도시, 건설현황 · 공공건축물 특화사업 체험 방문 제도

# 전 세계 건축학도 끌어 모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된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체험하기 위한 대학생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6일 오전 9시 전북대학교 교수, 외국인 학생과 건축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행복도시 건설현황 및 공공건축물 특화사업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여행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 학생 일행은 행복도시 건설 개념과 도시 전반에 대한 특화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행복도시 공동체 형성의 핵심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견학하였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행복도시 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둘러봤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념과 설계 공모 선정 작품의 건축시조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국, 이집트, 모로코, 몽골 등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제2의 한강의 기적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집 앞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민이 부럽다"고 감탄하였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단국대 건축과 학생 61명, 5월에는 홍익대 건축과 학생 50명, 9월에는 한국건축

정책학회 회원 21명과 KDI 대학원생 105명, 11월에는 경북대 건축과 40여명과 연세대 여성건축가 30여명 등이 건축기행으로 행복도시 찾는 등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준연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 친환경 요소 등 다양한 건축물 특화를 주도하며 新건축문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행복도시 사업이 진행 될수록 도시 전체가 건축박물관이 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공동대응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사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범위로 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사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범위로 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기·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대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창구)이 하진홍 원·사진은 대전지역의 경제발전의

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며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강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강소기업 또는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한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사업과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기업성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판권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지원 등 대전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들에게 맞춤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 기술, 판로, 인력의 문제의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술상용화지원, 마케팅지원,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취업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행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 창업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넷째,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행복 버스 운영, 일취월장 123년 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지원시책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중소기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션을 대전 중소기업 성장의 Hub화로 정하고 활기찬 대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은 대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구축, 시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창구 진흥원장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자세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사업현장을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 대전 의료관광, 중국 잠재 신흥시장 교두보 확보

### 시, 정주시 오란미용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계약체결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마케팅 공사와 충남대학교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의료관광 잠재 신흥시장인 중국 정주 및 대련 지역 여행사, 병원장,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설명회와 의료상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중국 정주시 오란의료 미용병원에서, 4일(현지시간)에는 대련시 선박예호텔에서 현지 에이전시와 보협사, 의료 관계자를 비롯하여 조선족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의 첨단의료장비와 특화의료기술,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 미용 등 수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과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의료상담회에서 김철중 건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진료상담을 받은 대련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상철 씨(41세)는 백색 인성을 위해 윈스톱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로 현장에서 사전 예약했다.

아울러, 3일과 5일(현지시간)에는 정주시 오란 미용병원과 대련시 중산병원을 방문하여 중국과 한국의 의료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양도시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환자케어 협진을 비롯한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다.

이번 홍보단에 참가한 의료기

관은 시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플러스성형외과, 보다안과 등 5개 병원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중 관계가 상 마그라프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병원 간 B2B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인이 선호하는 성형과 미용, 그리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등 대전의 첨단의료를 홍보하고, 중국 현지와 신뢰와 호응을 이끌어 내어 잠재 신흥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로 향후 중국환자 유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 충북권 지역통계 발전 협의체 토론회

## 충청통계청, 협력·확산 방안 논의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은 6일 충북 청주시에서 충청북도 및 시군 통계담당자와 함께 지역통계 개발,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충북권 지역통계 발전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도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지원한 단양군

노인실태조사, 충주시 특화작물조사, 영동군 취약계층통계 개발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각 기관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협력 및 확산 방안논의했다.

또한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통계의 정책 활용사례 모니터링, 충청북도 및 시군의 중점시책과 지역통계 연계 방안 및 작성 지원 방안 등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관한 충청통계청 지역통계과 김영수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6년 개발한 지역통계와 활용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통계 필요성과 개발에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충청권 지역 통계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맞춤형 통계 개발 및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미수검자 검진 챙기기 캠페인**

# 2016년 국가건강검진

##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곧, 검진기관 예약이 마감됩니다.**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
-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원, 직장비부양자
- 만 19세 ~ 만 39세 의료급여대상자
- 만 40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 1회)

**알검진**

- 위 알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간 알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상·하반기 년회 주기)
- 대장알 (만 60세 이상, 1년 주기)
- 유방알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암부알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검진유기가 2년인 경우, 출생 연도(목·출수)에 따라 실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와 만 60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 ~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

**h-well**  
국민건강보험

**대전유성지사**



# KT&G 자원봉사로 '국무총리 표창'

## 신탄진공장,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수상... 지역사회 위한 다양한 활동 앞장

KT&G(대표 백복인)의 신탄진공장이 12월 5일 자원 봉사자의 날을 맞아 열린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경북 경주시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수상 기관 임직원들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G 신탄진공장 임직원 700여명은 사내 22개의 봉사단을 자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무엇보다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 이상의 봉사단에 참여해 한마음으로 활동한 점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T&G 신탄진공장 임직원들은 2003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매월 한 집씩 선정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해주고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을 보수 해주는 '사랑 에(愛)집수리' 활동을 펼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장애인·노인 시설에 김장김치, 쌀, 월동용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14년째 이어왔다.

이 밖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금까지 총 480명에게 5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홀몸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목욕봉사도 8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다.

조종철 KT&G 신탄진공장장은 "KT&G는 신탄진공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상생투게더 봉사단을 조직해 한 해 2만 시간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수행해왔다"며, "여기에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등 기업 경영이념 중 하나인 '함께하는 기업'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부, 내고향 물해설가 강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부(지부장 차상철)은 만물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일 유소용 물해설가를 초청하여 일일강의를 실시했다.



### 2016년산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23일까지 2017년 봄 파종할 벼 보급종을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할 벼 보급종은 모두 7품종 134톤으로 삼광, 새누리, 미품, 대보, 윤광, 주청, 동진찰 등이며, 공급가격은 2017년 1월 중으로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정부 보급종은 소독처리 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미소독품종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산 보급종은 수확기 전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수박아가 발생해 당초 공급량의 약 79%만 확보했으며, 황금누리 등 일부품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벼 보급종 공급량이 당초계획보다 부족하므로 적정 파종량을 준수해 특정한 모 키우기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품종 특성 및 재배방법 등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충청우정청 우체국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열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지난 5일 ICC호텔에서 우체국 우수고객을 초청,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소개를 시작으로 "저금리시대의 행복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외부강사의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저녁 만찬과 함께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행복나눔 물품 기증식과 초청가수 김세환, 정훈희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가 열려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행복나눔 물품 기증식은 대전시자원봉사회 주관으로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우체국 및 우수고객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 및 우수고객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의류, 신발, 각종 생활용품 등 총 200여점을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이승재 청장은 "경제가 어려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과 복지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캠페인

아산시는 지난 5일, 제249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겨울철 공사 중인 아산시 풍기동 1차 EG the1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결빙으로 인한 전도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가지며 근로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아산시는 지난 5일, 제249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겨울철 공사 중인 아산시 풍기동 1차 EG the1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결빙으로 인한 전도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가지며 근로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산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아산시 안문협 산업안전분과 위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공사 중 각종 사고(추락, 붕괴, 화재·질식 등)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거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했으며, 안전점검 사항으로는 비계 설치 상태, 가설 승강로 상태, 작업발판 상태, 갈판 사용으로 인한 화재·질식상태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했다.

### 충청남도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 우수상

공주시, 지난해 이어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충남도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확대와 선별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종이팩·휴지 교환 캠페인, 자원순환센터 현장견학 및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에 발포스티렌 감용기를 설치·운영한 결과, 종이팩은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약 38%, 발포스티렌은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약 28%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는 유리 병류·종이팩 및 발포합성수지 회수 확대와 선별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종이팩·발포합성수지 및 유리병류를 대상으로 올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선별 및 홍보 등의 실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 이후천 팀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가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재활용 자원의 실효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노란우산공제 영세사업자 위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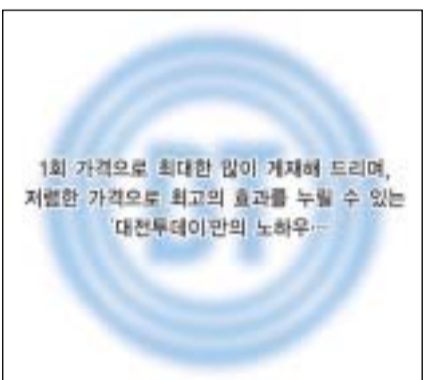
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

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오늘의 하이라이트

▲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 30분)



미주한 상호와 디희를 서로를 닮아하며 으르렁거리고 증오로 가득 찬 디희는 상호의 가슴에 달린 수감 번호를 보며 비웃어준다. 한편, 민수는 반성의 기회가 없는 상호의 모습에 분노하고 우주는 선영에게 고백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 50분)

면식(선우재덕)은 태평(김성령)의 수술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현준(박정욱)은 한길의 출생의 비밀을 미끼로 삼아 더욱더 그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케이블 명화

▲ 성난 변호사 (OCN 오후 5시 00분)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 (이선균).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 바로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변호하는 것!

좁혀짐 풀리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의 두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파트너 '박사무장' (임원희)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혐의를 벗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다!"

재판 당일, 사사건건 부딪히는 후배 검사 '진선민' (김고원의 반론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변. 언제나 그렇듯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 용의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다. 갑작스런 자백에 판사는 뒤바뀌고, 변변은 승소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승소를 확신한 순간, 시작된 반전 자존심 구간에 이스 변호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다!



한다. 한편, 윤호(권현상)는 인경(강별)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만 가고 헤자(오미연)는 면식과 한길의 이야기를 듣고 마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



인경(윤아정)은 민우(노영학)가 승준(김민호)을 이용해 자신을 속였단 사실에 분노하고 잃어버린 승준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다. 다급해진 민우는 근태(김규철)에게 승준을 인경보다 먼저 찾아낼 것을 지시한다. 승준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쳐가던 인경은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게 되는데...

▲ 레볼루션러로드 (채널 CGV 오후 10시 00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사랑일까? 첫눈에 반한 에이프릴(케이트 윈슬렛)과 프랭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뉴욕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교외 지역인 '레볼루션러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에 보금자리를 꾸리게 된 두 사람. 모두가 인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길, 레볼루션러로드에서 그들의 사랑과 가정도 평안해 보이지만, 잔잔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을 원하는 에이프릴과 프랭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로 이민을 꿈꾼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에 들뜨고 행복하지만 한 두 사람.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려는 찰나 프랭크는 승진 권유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파리로 가고자 하는 에이프릴, 그리고 현실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프랭크.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두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개최

제4회 지역사회복지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행사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지난 4일,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4회 지역사회복지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뮤지컬 '빨래')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씬 없이 달려온 330여명의 지역사회 복지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3년부터 4번째 지속적으로 문화나눔을 개최하고 있다.

삼성전자(온양캠퍼스) 온양사회공헌센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사회복지종사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17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형만(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복지서비스 이용자뿐만이 아닌 서비스제공을 위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산시의 복지수준을 올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2월 5일 지상파 시청률 순위

'남민덕터 김사부' 9회 연속 1위

지상파, 케이블 TV, DMB, Sky Life 시청률 조사 업체 TNMS가 지난 5일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을 공개했다. 6일 TNMS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상파 시청률 1위에는 KBS1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가 이름을 올렸다. '빛나라 은수'는 여승은 은수와 여제자 빛나가 거둬드는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이 이야기는 그린 화중우돌 가족 힐링 드라마다.

일일연속극과 아침드라마가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SBS 월화드라마 '남민덕터 김사부'가 시청률 188%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MBC 월화드라마 '불야성'과 KBS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는 시청률 TOP 2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선문대학교, 김제동

초청 특강 열어



선문대 (총장 황선호)는 8일 오후 2시 선문대 원화관 아트홀에서 대한민국대

표MC로 활약하는 김제동을 초청해 선문대 수시합격생을 대상으로 '열아홉,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강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가장 고민이 많은 나이인 19세 내외의 입학 예정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함께 대화해 나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동은 사전에 6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고민거리들을 받아 현장에서 황선호 총장과 총학생회장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조언과 답변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 느낄 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가 앞서 입학 예정자 학생들은 자신에 다니게 될 학교의 교수와 선배들을 만나 학교에 대한 설명과 비전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선배와의 만남과 '전공탐방'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타인의 고통' 김윤아, 앨범 자켓+뮤비 촬영 이미지 공개

8일 지정 앨범 발표... 신비로우면서 몽환적인 모습 선보여



밴드 자우림 멤버 겸 싱어송라이터 김윤아가 오는 8일 자정에 발표하는 솔로 앨범 정규 4집의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오 촬영 이미지를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공개했다.

공개한 앨범 자켓에서 김윤아는 희미한 초점으로 효과를 취 신비로우면서 몽환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강렬한 앨범 타이틀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 촬영 이미지에서는 그랜드 피아노와 검은 드레스를 입은 김윤아가 깨진 거울을 오브제로, 햇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뤄 새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윤아는 새 앨범 '타인의 고통'을 오는 8

일 발표하고 오는 9일, 10일, 11일 신한카드 팬스퀘어 라이브홀에서

단독공연을 시작한다. 올해는 tN '시그널'과 영화 <덕혜옹주> OST를 비롯해 4월부터 10월 간격으로 발매한 자작곡 '키리에', '안녕', '유리'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김윤아 라더욱 기대감이 커진다.

소속사 (주)인터파크 측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김윤아의 깊어진 세계관을 아름답게 펼쳐놓은 수작이자, 김윤아가 선사하는 최고의 앨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섬세하고 깊은 감성의 노래들로 채워진 3집의 솔로 앨범을 통해 솔로 아티스트 김윤아의 음악세계를 구축했기에 새 앨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종 두루초, 김장체험으로 따뜻한 겨울 준비 완료 교내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키우기 위해 3학년 전체 학생들과 1, 5학년 일부 학생들이 함께 하는 김장체험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OCN, MBC, YTN, and others.



**건강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랑 나눔 봉사활동 펼쳐** 건강사이버대학교(총장김희수) 사회복지학과와 봉사 동아리 '함께 자원봉사갑니까요'가 지난 3일 금산군 나뉨의집(대표 오지승)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폴리텍 대전 취업에로계층 수료식** 한국폴리텍 V 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지난 5일 본관4층 세미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사진촬영연합회 장수포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대학 보직관계자들과 담당학과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특선집단지인과경은 성혜숙을 비롯한 23명이 수료했다.



**한미음고등학교 백석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정식** 한미음고등학교(교장 구자평)는 5일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한정수)와 한미음고등학교에서 교육 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의 밤 행사 성료**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중덕)는 지난 6일 귀농귀촌인 200여명과 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보훈병원 '행복나눔 물품전달'** 지난 2일 김정김치와 자체기금으로 마련한 쌀과 과일, 라면을 대덕구에 소재하는 32주막에 전달했다. 조현복 병원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물품 전달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신관동 일동약국, 백미 160포기탁** 공주시 신관동 일동약국(약사 이주은)은 지난 2일 신관동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햅쌀 160포(10kg, 32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주최, 각 학년별로 경기 치뤄 학교폭력예방 위한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회장 권오석)에서는 지난 11월 20일과 12월 4일 양일간 서울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구기스포츠연맹(회장 김홍주)이었다. 대회의 주최인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는 전국에 지부와 지회가 구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이다. 대회의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구기스포츠연맹은 구기스포츠 단체를 조직화, 체계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안전한 구기스포츠 보급과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신체적 건강증진, 가족의 화합 문화 조성에 목적을 가진 단체이다. 양일간 서울, 경기, 세종, 충청 등 전국 10개 팀이 취미반과 엘리트반으로 약 3000여명(선수 1000명, 학부모 2,000명)이 참가하여 각 학년별로 경기를 치루었다.



이번 대회는 상호 우정을 나누는 건전한 유소년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 건전한 사회성 함양의 기회 제공과 축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폭력 및

성범죄예방 교육과 캠페인,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안전교육,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양성, 지역소방서 지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원금 지급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 대회의 후원원은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제주시지회(회장 이창준), 용인시지회(회장 윤영준), 강동구지회(회장 정수빈), 대전지부(회장 김성구), 안양시지회(회장 박은경), 사천시지회(회장 박병옥), 강원지부(회장 최관성), 대구지부(회장 주인돈), 안산시지회(회장 정용권), 인천지부(회장 최선호), 양천구지회(회장 표재현), 용산구지회(회장 정은채), 구로구지회(회장 김태원), 중구지회(회장 신현석), 남양주시지회(회장 김경석) 등이다. 김정환기자

## 당진맘카페 회원들 사랑의 내복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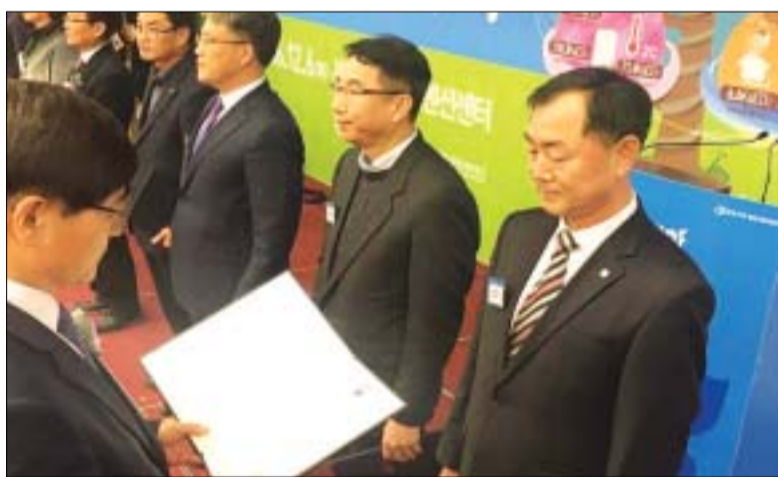
당진지역 독거노인 50명에게 내복전달



당진맘카페(대표 임진경)회원들은 지난 5일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내복 50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네이버카페모임 당진맘카페는 2만여 회원으로 구성된 당진의 대표 엄마들의 모임 카페이며 이번 후원 전달식을 위해 약 3주간에 걸쳐 '내복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당진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이 모여 흑한기를 대비해 50명의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에게 내복이 전달되었다.

당진맘카페 임진경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람 있는 후원을 하겠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환경부장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6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중부도사기스 '봉사의 날' 행사시행** 중부도사기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제8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랑의 헌혈과 가스전기 안전지킴이 행사를 가졌다.

서산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송년음악회"



서산시문화회관(관장 한옥희)이 오는 28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6년 서산시 문화가 있는 날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음악회에는 국민가수 '김건모'가 출연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첫인상 ▲핑계 ▲사랑이 떠나가네 ▲빛속의 여인 등 그동안의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팝&클래식 뮤지컬 스토리' 전국투어 콘서트, JTBC의 '김국진의 현악박치기'에 출연했고 2013년 SBS 연기대상에서 축하 공연한 '카이로'와 오페라 가수이자 ▲영화 '기담' OST ▲대중음악 우수사 CF ▲KBS 열린음악회 등에 참여한 '한아름'이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흡사 대형 뮤지컬과 같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뮤지컬합스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색채의 음악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김정환기자

법사랑 대전지역연합회

2016년 한미음대회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회장 정갑영)는 12월 7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법사랑대전지역연합회, 대전보호관찰소장,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범죄예방 유공수상자 및 가족, 법사랑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한미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음대회는 식전행사로 난타공연 및 동영상상영, 범죄예방 유공자포상, 결연 청소년 장학금수여, 정갑영 연합회장의 대회사, 안상돈 검사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 후생관에서 조촐한 다과회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시상식에는 범죄예방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은 법사랑 중구지구협의회 박희정 위원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위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결연 청소년 15명에게 총 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태선기자

## (주)서연이화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서연이화대표이사 김근식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53회 무역의 날에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Total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서 국내 2개 공장과 해외 16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앙연구소 외에 해외에 4곳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해외의 진출에 노력한 결과 2015년 서연이화의 매출은 연결기준 2조 2천 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서연이화(유양석 회장)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융복합', '친환경', '평화화' 등의 미래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SFE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개 분임조가 모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슬로바키아법인에서는 2014년 국가품질상 최우수상에 이어 2016년 유럽품질경영재단(EFQM)으로 부터 5스타를 획득하여 유럽에서도 우수한 품질경영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서연이화 김근식 대표이사(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강산업장상을 수상했다. 이산=리광주기자



## 목원대, 헨델의 '메시아' 공연 개최

목원대학교(총장 박노래) 음악대학은 12월 13일(화) 오후 7시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연다.

목원대 음대의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는 대전지역에 클래식이 불모지였던 1971년 초연된 이래 올해로 46년째를 맞는 가장 전통 있는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개교 62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기획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더불어 송년음악회

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 중 하나인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헨델이 오페라 공연에 실패한 후 종교적 감동과 믿음의 바탕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741년 아일랜드 공작 류테나트 경의 의뢰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불과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된 작품이다. '메시아'는 성서를 중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태선기자

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1999년 10월 30일 18시 57분경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 사고는 지하1층 지상 4층인 지하노래방 건물에서 발생한 하다 바닥에 뿌려놓은 신나에 불이 붙어 내부 장식재인 우레탄 등이 소실되면서 유독가스 발생하여 농연과 불길의 계단과 피트를 통하여 2층 라이브 호프집으로 확산되었다. 비상구가 막혀 있어, 사망 56명, 부상 81명 총 1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억조차하기 싫은 후진국형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2012년 5월에는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화재사고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직직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3년간(2013~15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되어 연평균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다.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하여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 출입구

와 비상계단 등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을 받은 뒤 비상구를 보관물품들로 막아두거나 잠가두는 경우가 흔하다. 낱지가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 피난로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 어디서든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실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기고

면제재산



이종현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Q)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 가지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는 파산채권자들에게 환기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일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되어 채무자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에는 2가지가 있는데, 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6월간의 생계비가 그것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과 그 금액이 동일할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재산인 임차보증금 ▲서울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세종, 안산, 용인, 김

포, 광주 2,000만원 ▲기타 1,700만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3,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간의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있는데, 늦어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파산선고 이전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비록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을 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상은 재산환가 과정에서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사설

살생물제 출시 강화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 출시도 까다로워진다. 살생물제 출시 업체는 승인 받은 살생물제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슴기살균제 사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내 살생물제 옥틸이소티아졸론(O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위해우려제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동액

등 87종 중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같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비관리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2만개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유통 현장에서 바로 퇴출 조치하고, 퇴출 대상 제품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생활화학제품의 출시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약품 심사정보 공개 바람직

그동안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알기 어려웠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정보가 공개된다는 다행으로 여긴다. 순문기 식약처장은 최근 "보고서 공개는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수준을 바로 알 수 있게 해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식의약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보를 통해 국민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업체는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심사 보고서는 2016년 7월 이후 허가된 신약에 대해 전문 공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공개되는 품목은 2개가 계획돼 있다. 공개되는 2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임벤스'와 길리어드사이언스스코리아의 HIV 치료제 '젠보야'다. 의약품의 허가·심사 정보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돼 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료제공목록과 안전성·유효성 검토 요약표만 공개돼 자세한 정보를 알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14년부터는 허가조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포함한 허가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허가·심사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에는 심사자의 검토에 대한 자세한 의견이나 판단까지 낱말이 공개돼 심사자나 기업 모두 향후 허가심사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약처는 향후 개량신약, 회귀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으로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정보 공개로 국내 제약업체의 제품 개발 활성화와 안전 관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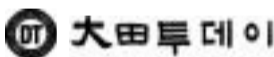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3 columns: Date, Title, Content. Includes dates like 2016.12.07 and various news snippets.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린신문

Table with 5 columns: Role, Name, Contact Info. Includes positions like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and contact numbers.

인쇄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text describing their features like '1 원형정적' and '3 정통미'.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 더 큰 생각을 하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상 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00\*550\*1900

작품특징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큰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Artschool** |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 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북청사, 지암초, 한림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간암초등학교 | 거제대남           | 월랑초등학교    | 동상   |
| 도암초등학교 | 동진             | 속초삼다리 유자원 | 사제상  |
| 나해초등학교 | 사제상            | 서성초등학교    | 가목사상 |
| 서양초등학교 | 사제상, 가학당초, 가학당 |           |      |

조형물 / 조형미술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